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September 2025 Issue | Vol. 6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해외 투자 둔화 — page 1-2
- 필리핀, 외국 기업 대상 ‘하루 만에 SEC 등록’ 허용 — page 2
-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7월 공장 생산 위축 — page 2-3
- 올해 필리핀 반도체 수출 성장세 ‘정체’ 전망 — page 3-4
- 필리핀의 경쟁력, 제조업 아닌 서비스 수출에서 찾는다 — page 4-5
- DOLE-NCR: 외국인 근로 허가, 이제 15일 처리 소요 — page 5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6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해외 투자 둔화

September 11, 2025 | By Malaya Business News Team, Victor Sollorano



2025년 상반기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순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23.8% 감소한 것으로 중앙은행이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6월까지 6개월간 FDI는 전년 동기 45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중앙은행(BSP)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달 동안 순유입액은 3억 7,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4억 5,700만 달러보다 17.8% 감소했다. 이는 비거주자의 순자본 유입이 8,500만 달러 유입에서 5,700만 달러 유출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채투자 이익이 36.7% 증가해 1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채무상품 투자가 9.3% 증가해 3억 500만 달러에 이르면서 감소폭이 일부 완화되었다고 BSP는 설명했다.

해당 월의 자본투자는 주로 일본, 미국, 한국에서 유입되었으며, 투자 분야는 주로 제조업, 부동산, 도·소매업에 집중되었다.

글로벌 역풍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이번 둔화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포함한 글로벌 역풍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수입관세 인상과 무역전쟁 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글로벌 투자 흐름을 위축시키고 필리핀 FDI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리카포트는 또 국내의 정치적 잡음, 서필리핀해(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같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위험도 투자심리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은 생산능력 확대나 신규 자본 투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혁 조치들이 필리핀의 외국인 자본 유치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시행된 CREATE MORE 법의 시행규칙과 외국 기업에 대한 최대 99년 토지 임대료 허용하는 새로운 조치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인센티브 격차를 줄였으며, 투자자들이 필리핀에 보다 과감히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nt. page 2]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해외 투자 둔화

[Cont. from page 1]

CREATE MORE 패키지에는 등록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는 조치,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록 기업의 50% 이상 현장 근무 의무화, 전기요금의 더 많은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인 전력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리카포트는 이러한 개선책들이 미 연준(Fed)과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리면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의 차입 비용을 줄여, 필리핀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여전히 상쇄 위험 존재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두 번째 취임 이후 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거나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상쇄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카포트는 1억 1,400만 명이 넘는 필리핀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구조적인 매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foreign-investment-slows-on-global-uncertainty/](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foreign-investment-slows-on-global-uncertainty/)

필리핀, 외국 기업 대상 ‘하루 만에 SEC 등록’ 허용

September 10, 2025 | Meg J. Adonis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외국인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도 이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원데이(OneSEC) 등록 시스템을 통해 하루 만에 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SEC는 수요일, 온라인 기업 등록 시스템인 ‘원데이 제출 및 전자등록(OneSEC)’을 외국 자본이 포함된 법인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SEC 프란시스 림(Francis Lim)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 법인을 위한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는 필리핀의 기업 환경 개선 노력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OneSEC 적용 대상을 외국 법인으로 확대한 것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필리핀이 기업 활동에 열려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더 많은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함” 이라고 말했다.

SEC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필리핀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145개에 달했다. /dda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46363/philippines-now-allows-one-day-sec-registration-for-foreign-firms](https://business.inquirer.net/546363/philippines-now-allows-one-day-sec-registration-for-foreign-firms)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7월 공장 생산 위축

September 11,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성장세를 마감하고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선택 산업 월간 통합조사(MISSI)에 따르면, 2025년 7월 국내 생산량지수(VoPI)는 1.1% 감소했다. 올해 들어 VoPI가 가장 크게 줄어든 시점은 2025년 2월의 1.9% 감소였다.

다만, 클레어 데니스 S. 마파(Claire Dennis S. Mapa) 국가통계청장은 전체 VoPI는 감소했지만 식품 제조업 생산이 제조업 일자리 손실을 막아주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MISSI에서 보고되는 제조업은 [생산 감소와 함께 나타나지만], 세부 산업, 특히 식품과 육류 제품을 보면 오히려 생산이 증가했다” 고 마파 청장은 수요일 브리핑에서(일부는 필리핀어로) 말했다.

노동력 조사(Labor Force Survey)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은 7월에 10만 9,000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이는 2025년 7월 제조업 종사자가 356만 명으로, 2024년 7월의 345만 명보다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Employees work in a production facility in Malabon City, the Philippines. Photographer: Veejay Villafranca/Bloomberg

[Cont. page 3]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7월 공장 생산 위축

[Cont. from page 2]

마파 청장은 이는 주로 식품 제조업의 성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식품 제조업은 2025년 7월 생산량지수(VoPI)가 16.5%를 기록하며, 2024년 7월의 13.3%보다 빨랐지만 2025년 6월의 22.4%보다는 둔화된 수치를 보였다.

한편, 생산가치지수(VaPI) 기준으로는 2025년 7월 1.3% 감소해 2025년 6월의 1.2% 증가에서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PSA 자료는 나타났다.

VaPI의 감소폭은 2024년 11월 4.1% 감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24년 7월에는 제조업 VaPI가 6.6% 증가한 바 있다.

식품 제조업의 VaPI는 2025년 7월 17%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의 14.4%보다는 빠른 증가세였지만, 2025년 6월의 22.9%보다는 느린 수준이었다.

또한 PSA 자료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기준으로 2025년 7월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7.1%로 집계되었다.

2025년 7월 평균 가동률은 76.6%를 기록한 6월보다, 또 75.8%였던 2024년 7월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PSA는 해당 월에 모든 산업 부문이 6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동률 기준 상위 3개 산업은 담배 제품 제조업(85.1%), 기타 제조업 및 기계·장비 수리·설치업(83.4%), 가죽 및 관련 제품(신발 포함) 제조업(83%)이었다.

전체 응답 사업체 중 90100%의 전면 가동으로 운영한 기업의 비율은 42.9%였다. 한편, 35%는 7089%의 가동률을 보였고, 22.2%는 70% 미만의 가동률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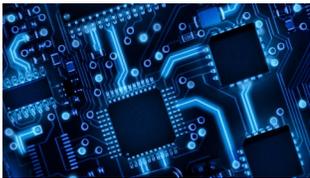
한편 MISSI(생산지수 및 순매출지수)는 제조업 부문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선정된 제조업체들의 생산, 순매출, 재고 및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With Erwin James T. Gianan**

Image credits: [VEEJAY VILLAFRANCA/BLOOMBERG](#)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11/steepest-decline-in-5-months-july-factory-output-shrinks/>

올해 필리핀 반도체 수출 성장세 '정체' 전망

September 11, 2025 | Jordeene B. Lagare | Philippine Daily Inquirer



STOCK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반도체·전자업계 단체는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 증가세가 비교적 정체되거나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리핀 반도체전자산업협회(SEIPI) 다닐로 라치카(Danilo Lachica) 회장은 단체가 이전에 제시한 완만한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 대미(對美)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전망이다.

라치카 회장은 인터뷰에서 “사실 올해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은 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전히 정체 수준의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낙관적으로는 다소 완만한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외에도, 라치카 회장은 이번 전망이 기술 발전 요인에도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인더스트리 4.0(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Cont. page 4]

올해 필리핀 반도체 수출 성장세 ‘정체’ 전망

[Cont. from page 3]

‘평소와 다른없는 영업’

지난 4월 SEIPI는 필리핀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3년(-8%)과 2024년(-6%) 두 해 연속 위축 이후 2025년에는 1~2%의 소폭 반등을 전망한 바 있다.

라치카 회장은 반도체 기업들이 여전히 1962년 제정된 미국 무역확장법(US Trade Expansion Act)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없는 영업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합헌 여부 판결 결과 등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면서도, 올해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업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치카 회장은 “설령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더라도 수요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기술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대체될 수 없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46422/ph-semiconductor-export-growth-seen-flat-this-year>

필리핀의 경쟁력, 제조업 아닌 서비스 수출에서 찾는다

September 09,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HSBC는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의 진정한 비교우위 원천은 서비스 산업에 있다며, 서비스 인력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HSBC 아시아 경제 담당 부이사 이네스 램(Ines Lam)은 화요일 상그릴라 더 포트에서 열린 제23회 국제 CEO 컨퍼런스에서 “필리핀의 독특한 가치 제안은 사람, 즉 소프트 스킬” 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제조업을 뒤쫓는 것” 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램 부이사는 제조업이 어느 경제에서나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지만, 미국 관세로 인한 혼란 속에서 필리핀은 인재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필리핀이 이러한 강점을 잃지 않고, 새로운 무역 역학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해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특히 필리핀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이는 필리핀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필리핀경영협회(MAP) 알프레도 S. 판틸리오 회장은 제조업 또한 강조되어야 하며, 동등하게 중요한 분야라고 언급했다.

그는 행사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제조업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제조업 투자는 국가에 장기적인 자본 투입을 의미한다” 고 말했다.

판틸리오 회장은 “서비스 산업 역시 필요하지만, 기술 변화나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는 경쟁과 같은 위협이 존재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비스에만 집중하는 것은 균형 잡힌 경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램 부이사는 필리핀 경제가 국내 수요에 의해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의 영향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의 통상 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Cont. page 5]



필리핀의 경쟁력, 제조업 아닌 서비스 수출에서 찾는다

[Cont. from page 4]

“첫 번째 불확실성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는 것이다.

법원이 해당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각국이 미국과 협상해온 무역 협정들이 무효화될 수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이미 징수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그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겪게 될 혼란과 충격을 상상해 보라”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9/09/697416/service-exports-not-manufacturing-viewed-as-phils-competitive-edge/](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9/09/697416/service-exports-not-manufacturing-viewed-as-phils-competitive-edge/)

DOLE-NCR: 외국인 근로 허가, 이제 15일 처리 소요

September 10, 2025 | Justine Xyrah Garcia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필리핀 고용노동부-국가수도권 사무소(DOLE-NCR)는 외국인과 그 고용주들에게 외국인 고용 허가서(AEP) 발급 소요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영업일로 연장되었음을 상기시켰다.

해당 기관은 최근 공지를 통해, 이와 같은 기간 연장은 필리핀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신청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5일 처리 기간에는 학력, 경력, 자격 등의 서류 심사, 지역 국장에게 승인 요청, 필요한 경우 보완 서류 제출 및 검증 조사, 허가 카드 인쇄 및 준비, 승인된 AEP 발급 일정 조정 및 배포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DOLE-NCR은 “처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AEP 발급 절차의 신속 처리를 별도로 요청할 필요는 없다” 며 “15영업일의 기간은 심사, 보완, 승인, 발급 등 모든 절차를 충분히 반영해 설계된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류가 불완전한 신청 건은 모든 요건이 제출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DOLE은 「2025년 제248호 부서 명령」을 발표하며 AEP 발급 지침을 개정했다.

새 규정에는 외국인 고용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성 검토, 필리핀인 직원이 외국인 채용자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 직원 훈련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단순화된 노동시장 검증 절차도 도입됐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DOLE은 19만 2,000건 이상의 AEP를 발급했으며, 이 중 중국인이 73,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자가 43,58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10/dole-ncr-alien-permits-now-need-15-day-processing/](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10/dole-ncr-alien-permits-now-need-15-day-proces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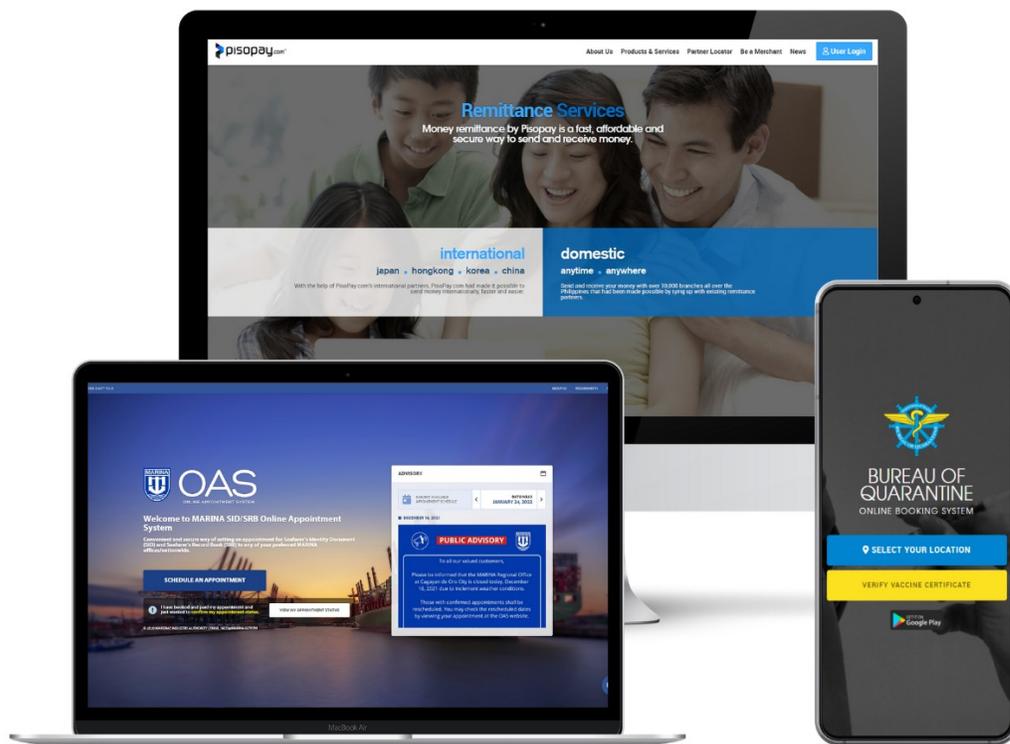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